

쿠바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6.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9

쿠바

I. 일반개황

면적	111천 Km ²	GDP	363억 달러(2005년)
인구	11.2백만 명(2005년)	1인당 GDP	3,241달러(2005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통화단위	Peso
대외정책	반미주의	환율(달러당)	23.1(2005년)

- 쿠바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80km 떨어진 카리브해의 3,715개의 섬으로 구성된 카리브 지역내 최대 도서국가임.
- 쿠바는 공산혁명, 미사일 위기, 카스트로의 장기집권, 미국의 경제봉쇄 등으로 인해 미주대륙 33개국중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수교국이나, 최근 KOTRA 아바나 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민간차원의 한,쿠바 관계가 점차 가까워지는 추세가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e	2006 ^f
경제성장률	1.5	2.9	4.2	8.0	5.6
재정수지/GDP	-3.2	-3.3	-4.2	-4.8	-3.9
소비자물가상승률	8.8	0.6	1.3	4.8	4.4

자료 : IFS, EIU

□ 제한적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성장세 회복

- 쿠바 경제는 원유 등을 특혜 공급해주던 구소련의 붕괴로 탈냉전 이후 급속히 침체되어 1989~93년간 GDP 규모가 축소되는 등 경제위기를 겪었음.
- 그러나 1994년 이후 관광 및 석유산업 개방, 자영업 허용, 달러화 통용 등 제한적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세를 회복하였음.
- 그러나 2000년대 초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최대 산업인 설탕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설탕 생산량 급감으로 성장세가 둔화됨.

□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경제지원 등에 힘입어 2005년 8.0% 성장

- 그 동안 쿠바 경제성장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미국의 경제봉쇄에 따른 외자조달의 어려움이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베네수엘라와 중국이 쿠바에 대해 대규모 투자와 경제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수출과 쿠바 의료진의 개도국 의료서비스 수출 확대 및 관광산업 호조에 따른 서비스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05년에는 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정부가 전력, 주택 분야의 대규모 인프라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가격통제로 물가는 안정세 유지

- 소비자물가는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농축산물 공급 부족으로 2002년 8.8% 급등했으나, 이후 정부 통제 및 보조로 다소 진정되고 있는 추세임.
- 2005년에는 경제 활성화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4.8%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나, 금년에는 폐소화 평가절상과 정부의 가격통제 등에 힘입어 4.4%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적자 지속

-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2005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4.8%로 확대되었으나, 대베네수엘라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금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9%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설탕산업 의존구조 탈피 도모

- 2002년 상반기부터 사탕수수 경작지 60% 환작, 제당공장 55개소 폐쇄 등 설탕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경제의 설탕산업 의존구조 탈피를 도모하고 있음.

□ 폐소화 통합 추진

- 현재 쿠바의 통화는 쿠바페소(CUP: Cuban Peso)와 태환페소(CUC: Convertible Peso) 두 가지가 통용되고 있음.

- 쿠바 정부는 2004년 11월 미국의 신경제봉쇄정책(2004.6)에 따른 국익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 달러화의 통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점진적으로 쿠바페소와 태환페소의 통합을 통한 통화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음.
- 태환페소의 대미달러 환율은 1:1로 고정되어 있으며, 쿠바페소의 對태환페소(또는 달러) 환율은 2004년 26페소에서 2005년 23페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관광산업의 발전가능성 높음

- 쿠바는 온난한 카리브해 기후, 6,000km의 해안선과 300여개의 해변 등 천혜의 자연조건과 유럽, 아프리카, 미국 문화가 혼합된 문화적 장점을 활용하여 카리브 주요 관광국가로 발전하고 있음.
- 특히 쿠바는 살사, 롬바 등 고유의 음악 및 춤을 바탕으로 문화 상품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중남미 지역은 물론 아시아, 유럽까지 쿠바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쿠바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경제봉쇄가 지속되는 한, 지속적 경제발전 곤란

- 2004년 6월 미국은 新쿠바 경제봉쇄조치를 단행함. 동 조치의 주요 내용은 1) 쿠바내 민주화 단체 지원 확대 2) 대쿠바 심리전 방송 전송능력 강화 3) 쿠바계 미국인의 방문 횟수(연 1회 → 3년 1회)와 방문시 사용금액(1일 164달러 → 50달러) 축소 및 송금(연 8-10억 달러) 규제 강화임.
- 쿠바는 동 조치로 인해 2004년 11월 8일부로 국내에서 미 달러화 사용을 전면 중단하면서 10%의 수수료를 받고 페소화로 교환해 주는 등 달러화 부족에 대응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봉쇄가 지속되는 한 쿠바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개방정책의 한계 직면

- 개방에 따른 이익이 관광산업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일부 계층에게만 집중되면서 계층간 갈등과 지하경제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주의 체제 재정비에 주력

- 제한적 개방정책 추진으로 계층간 갈등과 지하경제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최근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불가침·영속성'을 헌법에 명기(2002.6)하고, 달러화 통용을 금지(2004.11)하는 등 개방물결에 흔들려온 사회주의 체제 재정비에 주력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e	2006 ^f
경 상 수 지	-276	-136	134	148	-368
경상수지/GDP	-1.0	-0.4	0.4	0.4	-1.0
상 품 수 지	-2,707	-2,951	-3,106	-4,296	-5,000
수 출	1,422	1,672	2,181	2,682	2,900
수 입	4,129	4,623	5,286	6,928	7,900
외환보유액	594	638	2,118	2,218	..
총외채잔액	10,900	11,300	12,000	12,600	13,200
총외채잔액/GNP	107.2	99.9	95.5	86.8	80.6
D. S. R.	40.9	35.2	30.7	25.2	24.8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 적자규모 확대 지속

- 경제 활성화와 고유가로 인한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5년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43억 달러(수출 27억 달러, 수입이 6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는 5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적자 전환 전망

- 경상수지는 對베네수엘라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수출 및 관광수입 증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에 의해 2004~05년 동안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금년에는 상품수지 적자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GDP의 1.0%인 3.7억 달러)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지속

- 쿠바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와 공산당 일당체제를 고수하는 쿠바 지도부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음.
- 쿠바 외국인투자·경제협력부(Ministry of Foreign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쿠바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 수는 73개이며, 주요 투자분야는 에너지 산업(석유)과 광업(니켈 및 코발트), 주요 투자국가는 스페인, 캐나다, 이태리, 이란, 중국, 베네수엘라 등임.
- 현재 이란이 시멘트 생산설비와 500~1500MW 규모의 발전소 건설에 약 2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도 쿠바와 공동으로 씨엔푸에고(Cienfuego) 정유설비 현대화 사업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헬름스 버튼(Helms-Burton)법 저축여부 유의 필요

- 헬름스 버튼법은 쿠바 정부가 국유화한 미국인 자산을 외국기업이 사용·거래시 보상요구 권리를 미국인측에 부여하며, 동 외국기업의 임직원과 직계가족의 미국입국을 거부함으로써 외국기업의 대쿠바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바, 차후 문제발생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동법 저축여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외채규모 과다

- 쿠바 중앙은행은 1986년 디폴트 선언 당시를 기준으로 외채를 유효외채(Active Debt)과 지급중단외채(Immobilised Debt)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음.

- 2005년 말 현재 총외채는 135억 페소(약 126억 달러)이며, 이중 유효외채는 59억 페소(약 55억 달러), 지급중단외채는 75억 페소(71억 달러)임.
- 한편, 쿠바 외채통계에는 200억 루블(1990년 기준 200억 달러 상당)의 구소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쿠바 정부는 구소 붕괴시 쿠바가 보유하고 있던 구소채권과 상계처리되었음을 이유로 동 채무를 부인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여 구소채무 문제를 협의한 바 있음.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피델 카스트로의 장기집권 지속

- 피델 카스트로(1926년생) 국가평의회 의장은 1959년 이후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으며, 8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카스트로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물러날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 및 측근을 요직에 배치한 가운데,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1931년생, 국가평의회 제1부의장 겸 국방장관)를 사후 후계자로 지목하여 권력의 형제 세습 구상을 공식화하고 있음.
- 카스트로의 건강이상 조짐은 2001년부터 관측되어 왔는데, 특히 최근(7.31)에는 신병상의 이유로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임시 이양한다고 발표하는 등 카스트로의 장기집권체제에 변화가 불어 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라울 카스트로의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쿠바내 반체제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쿠바 정치체제 변경을 위한 정치,경제적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카스트로 유고시 쿠바 정치체제가 급격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지속

- 쿠바 헌법 제5조는 쿠바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의 최고 지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의 고립화 정책에 대응하여 유럽 및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추구

- 쿠바는 기존 우호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물론 유럽 및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남미의 좌파정부 국가와의 유대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미국과는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미국 역대 행정부는 카스트로 정권 붕괴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내 반쿠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쿠바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 6월에는 미국내 쿠바인들의 본국송금 규제 등을 골자로 한 新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
- 미국의 고립화 정책에 대응하여 쿠바는 유럽 국가와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는 쿠바의 민주화, 인권개선 진전 속도에 맞추어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쿠바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민주화와 인권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쿠바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반체제운동 확산에 강경 대응

- 카스트로 정부는 비밀경찰과 8만여 개의 지역 단위 혁명수호위원회를 활용하여 반체제 활동을 통제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추방하거나 구금하고 있음.
- 획일적 통제가 가능한 전체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 및 보건 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적절한 기회균등 제공 및 복지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사회적 불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쿠바의 국가신용도는 세계 최하 수준

- o OECD : 7등급(05. 6) → 7등급(06. 6)
- o Euromoney : 182/185(05. 9) → 182/185(06. 3)
- o I.I : 152/173(05. 9) → 162/173(06. 3)
- o I.C.R.G. : 103/140(05. 7) → 99/140(06. 6)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 Cover legally prohibited
- Hermes : ST cover available, restrictions will apply
- ECGD : ST cover subject to C L/C, restricted MT cover

3. 외채상환태도

□ 외채위기 경험국가

- 1980년대 초 파리클럽과 4차레에 걸쳐 약 18억 달러에 대한 공공채무 리스케줄링을 실시(cut-off date: 1982.9.1)하였으며, 런던클럽과도 3차레에 걸쳐 4.9억 달러의 상업채무 리스케줄링을 실시한 바 있음.
- 그러나 1986년에 120억 달러 규모의 외채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하였음.
- 이후 파리클럽이나 런던클럽과의 리스케줄링은 없었으며, 양자간 리스케줄링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일례로 1998년에 일본기업 28개사의 대쿠바 상업채무 7.5억 달러에 대한 리스케줄링이 실시된 바 있음.

□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으로 해외자금조달 제한적

- 쿠바 정부가 1959년 혁명 성공 이후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인 소유자산을 국유화하자, 미국은 국교 단절(1961.1) 및 전면적 금수조치(1962.2)를 단행하였으며, 이후 대쿠바 경제봉쇄정책을 강화해 왔음.

- 이로 인해 쿠바는 과거 해외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소련에 의존해 왔으나, 냉전체제 붕괴 이후 소련의 대쿠바 원유수출 감축(1990.8) 및 소련 붕괴로 인한 원조중단(1991.12)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바 있으며, 쿠바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했음.

□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대쿠바 경제지원 확대

- 최근 들어 중국, 베네수엘라 등이 쿠바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는 쿠바에 대해 시장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해주고 있으며, 중국도 쿠바에 대한 현물차관을 비롯한 4억 달러의 원조와 중국수출보험공사(Sinosure)를 통한 대쿠바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비수교국이나 최근 민간차원의 경제교류 확대 추세

- 우리나라와는 비수교국으로서 쿠바 혁명 이후 비우호적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정부차원의 조약 체결도 전무한 상태이나, 냉전 종식후 양국 정부인사교류를 통해 관계발전 모색하고 있고, 2005년 9월 KOTRA 아바나 무역관이 개소되는 등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는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음.

V. 종합 의견

- 쿠바는 구소련 붕괴 이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한적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미국의 경제봉쇄 강화와 개방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의 불가침·영속성을 헌법에 명기하는 등 개방물결에 흔들려온 사회주의 체제의 재정비에 주력하고 있음.
- 카스트로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을 지속하고 있고 후계구도를 마련하여 사후에 대비하고 있어, 쿠바의 민주화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베네수엘라 중국 등 소수 우호국들의 지원과 관광산업 및 광업 호조로 인해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봉쇄가 지속되는 한 쿠바 경제의 지속적 발전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참 고 > 미국의 對쿠바 경제제재 경과

- 1961.1 : 외교단절
- 1962.2 : 금수조치
- 1963.2 : 자국민의 쿠바 여행 금지
- 1977년 : 양국은 상대국에 준공관 성격의 이익대표부(Interest Section) 유지
- 1992년 : 쿠바민주화법(일명 Torricelli법) 제정
 - o 쿠바 항구에 기항한 선박의 미국 기항금지(6개월간)
 - o 미국기업 해외지사의 대쿠바 교역 금지
 - o 대쿠바 유무상 지원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및 무기판매 중단
 - o 쿠바의 반정부세력 지원
- 1995년 : 민간 원조기구의 쿠바내 활동, 언론사 지국의 상호교환, 미국인의 교육, 종교, 인도적 목적의 쿠바 방문 등을 허용
- 1996.3. : 쿠바자유민주연대법(일명 Helms-Burton법) 제정
 - o Title I : 1963년 이래 행정명령으로 실시되어온 교역 및 금융거래 금지조치를 법제화하고, 대쿠바 금수조치 해제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규정
 - o Title II : 쿠바에 민주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만 대쿠바 금수조치를 해제하며, 미국은 쿠바의 민주화를 지원하되 민주화 과정에서 카스트로와 그 측근의 참여를 배제
 - o Title III : 1959년 혁명 이후 쿠바 정부가 국유화한 미국인 및 미국기업의 쿠바내 자산을 외국기업이 사용·거래시 그 금액이 5만 달러를 넘으면 미국인에게 해당기업에 대한 보상요구 소송을 미국법정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o Title IV : 쿠바가 국유화한 미국재산을 사용·거래하는 외국기업의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에 대한 미국 입국을 거부

- 기타 : 국제금융기구의 대쿠바 금융지원 및 회원국 영입을 반대
 - 유보조항 : 대통령의 결정으로 국익 및 쿠바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Title III는 6개월 단위로 유보 가능
- ※ 유럽연합 국가들은 동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유엔 총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자 미국 대통령은 제 3조의 법적 효력 발생을 시한부로 유보했음.
- 1998년 : 전세기 직항(1996.2 경비행기 격추사건 이후 중단) 및 쿠바거주 가족에 대한 분기당 300달러의 현금송금(1994.8 난민사태 발생 후 중단) 재개를 허용하고 대쿠바 의약품 판매 절차를 간소화
 - 1999년 : 송금수취대상(친척외 일반인과 일반단체 포함)과 전세기 취항(마이애미, LA, 뉴욕)을 확대, 종교, 과학, 교육, 문화 등 비정치분야 교류촉진을 위한 민간교류 확대조치 발표
 - 2000년 : 수출 사전허가, 금융지원금지 등의 조건하에 미국기업의 대쿠바 식품 및 의약품 수출을 허용
 - 2001.12 : 허리케인 수해발생을 계기로 미 카틸사 등의 대쿠바 식량판매(3000만 달러)를 허용, 1962년 금수조치 이후 39년 만에 최초로 양국간 직교역이 성사
 - 2002년 : 미 상하원의원 7명 쿠바 방문,
 - 2004년 6월 : 新쿠바 경제봉쇄조치 단행

문의 : 전문연구원 양행민 (☎3779-6676)

E-mail : haengmin@koreaexim.go.kr